

‘마당’을 지나 ‘과수원’으로 향한 시선, 씨실과 날실로 짜내는 흥겨움



한국 동화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진 작가 황선미 씨(40)가 과수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고 아이들 곁에 찾아왔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전부터 짬짬이 쓰고 있던 작품 6편을 모은 이 책에는 과수원 안팎의 다양한 주인공들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배치돼 흥미롭게 전개된다. 작가는 치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이 책을 통해 동화의 단선구조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보여줬다. 날실과 씨실을 들고 이야기를 짜듯 동화 여섯 편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은 것이다.

“이야기를 엮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
어요. 오리, 쥐, 고양이 등 이야기



들마다 코드가 하나씩 섞여져
있거든요. 오리 얘기 나
오면서 쥐가 슬쩍
지나가는 게 보
여야 하는데 이

걸 맞춰 나가려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과수원을 점령하라》의 ‘과수원’은 특별한 공간이다. 도시화로 인해 마을 곳곳이 개발되었지만 유일하게 이 공간만이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 송수신탑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네의 유일한 쉼터, 터전으로 자리잡은 과수원. 그곳에 귀를 기울여보면 곳곳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리고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함께 엮히고설켜 정겹게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이 발견된다. 황소개구리 잡기에 나서는 오리들, 마당한 집터가 없어 헤매다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과수원을 찾아온 쥐, 과수원으로 찾아들어온 애완견 고양이 호피, 배꽃마을을 자기 집처럼 아끼는 토박이 할머니 이야기들이 정겹게 펼쳐지는 것이다. 단선의 동화와는 다르게 상징적인 코드를 적절히 삽입하는 황선미 씨의 작법은 이번 책에서도 여전하다.

“오리가 물을 상징한다면 고양이는 밤을 상징하죠. 모두들 과수원이라는 터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에 첨단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과수원인데 통신지역이라 개발이 안 되었죠. 소재는 그 주변에 살던 당시에 얻은 것입니다.”

2000년에 동화계의 밀레니엄 스타로 떠오른 작가이지만 그의 생활은 더없이 평범하고 소박하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조용하게 혼자 있을 시간에 글을 쓴다는 것이 일반 주부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과’. 생활사에서 소재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그는 스스로가 흥미를 갖고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 자체가 ‘소재’와 ‘주제’가 된다고 말한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는데 출판사나 책과 관련된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후에 독서지도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책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게 된 지 올해로 8년째. 우리 창작동화계를 이끌 작가로 꼽히는 그는 지난 3월부터 모교에서 아동문학과 아동문학 창작실습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특별한 선배나 선생님 혹은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먼저 데뷔를 했건 안 했건 얼마만큼 준비하고 쓰느냐, 작가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작품에 관여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과수원을 점령하라》 황선미 지음 | 김환영 그림 | 사계절출판사 | 224쪽 | 값 8,500원



“우리집 아이들은 귀가 따갑도록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겨워하죠. 아이들책을 쓰니까 아이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거든요. 이제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장기간에 걸쳐 제 추억들을 글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내 푸른 자전거》를 통해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릴 적 경험들을 더 담아보고 싶다는 그는 장 루이 푸르니에의 솔직한 기록인 《나의 아빠 닥터 푸르니에》를 애장도서로 손꼽았다. 유명한 의사 이면서 알콜중독자였던 사내의 이야기를 푸르니에 특유의 냉정한 어투로 표현했다는 것이 그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다. 푸르니에의 능청스러운 감각과 위트, 노련함을 본받고 싶다는 그는 그의 책 속에 피소드들을 맛깔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

“글을 잘 쓰는 작가 혹은 감칠맛나게 이야기를 잘 하는 이야기꾼이라는 소

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른 소설 못지 않은 탄탄한 구조와 무게감 있는 내용의 수작돌을 발표한 황선미 씨는 더없이 겸손했다. 그런 그가 소설이 아닌 동화를 ‘주종목’으로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동화는 뭐든지 가능하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기 힘든 이야기를 동물로 은유시켜 전개할 수도 있고 판타지, 의인화 모두 다 가능하잖아요.”

그는 능청스럽게, 유쾌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데서 동화의 매력을 찾았다.

“고민을 하고 쓴 책인가 할 정도로 민망한 제목을 단 책들이 많더군요.”

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 어린이책을 살펴봐왔다는 그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려는 동화들이 많은 걸 실감했다면서 아동출판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은 어른 글 못지않은 재미있고 유익한 어린이책으로



아이들, 어른들 모두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문학평론가인 원종찬 씨는 《과수원을 점령하라》를 평하면서 “아이들마냥 유쾌하고 활달한 떠들썩함과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 안는 유머를 한껏 맛보게 해주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말처럼 황선미 씨는 우리 앞에 있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유의 따뜻한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유쾌한 분위기의 실로 짜내는 특별한 작가다.

담은 내용물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그릇으로 변한다는 동화. 한국의 대표 동화 작가로 우뚝 선 황선미 씨는 상상력과 자유로움으로 이루어진 동화의 세계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동화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마당’을 나와 이제는 ‘과수원’으로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이 다음에는 어느 곳에 머물러 어린이들의 눈길을 붙들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